

# NEWS

## 『세계 의료사와 한국 가톨릭 의료사 개관』(조규상 교수 著)출판기념회 “저작권과 출판권 가톨릭의료협회에 기증”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조규상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교수의 최근 저서 『세계 의료사와 한국 가톨릭 의료사 개관』(한국가톨릭의료협회의 출판기념회가 10월 15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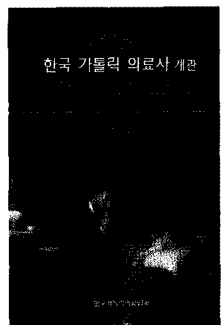
이 책은 서양의학이 질병과 환자, 사회제도, 환경 등과 얽혀 변화, 발전해 온 과정과 세계 의료사 속에서 한국가톨릭교회가 실천한 사랑과 치유의 의료 활동을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별로 정리한 저서이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2대 가톨릭중앙의료원장을 역임한 김창렬 주교(전 제주교구장)를 비롯해, 김대군 신부(사제평생교육원 부원장), 이성만 신부, 장덕필 신부와 현 가톨릭중앙의료원장인 최영식 신부 등 역대 가톨릭중앙의료원장이 자리를 함께하였으며, 평화방송 사장 오지영 신부, 의무부총장 남궁성은 교수 등 사제단, 수도자, 가족 및 친지, 의료인 등 100여 명의 내외귀빈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김창렬 주교는 축사를 통해 “조규상 교수님은 50여 년 동안 저에게 좋은 선생이자 큰 힘이셨다”며 “유덕한 의사이자 헌신적인 교육자였고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교수님께서 이번 저서를 출판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출판을 축하했다.

최영식 신부는 기념사를 통해 “이 책은 앞으로 의료에 종사하게 될 의학도들에게 지난날 세계 속에서의 가톨릭교회의 의료 사업과 한국가톨릭교회가 이룩한 의료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그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고령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작업을 마친 조규상 교수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했으며, 저작권과 출판권을 모두 한국가톨릭의료협회에 맡겨주심에 더욱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날 조규상 명예교수는 답사를 통해 “인간이란 무엇이고, 왜 존귀한 존재이며, 인간의 생명은 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 하는 기본적 질문에 이르러 의료와 윤리 그리고 종교와의 근본적 만남이 있고, 이에 대해 본인은 역사가도 아니고 신학과 윤리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지만 가톨릭 신앙을 가진 의학도로서 인류역사가 걸어온 의료 속에서 이 문제의 해답을 얻어 보고 싶은 욕망으로 책을 집필하게 됐다”고 집필 의도를 설명하며, “치유자 봉사는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복음전파 사명의 가장 구체적 실천”이라며 “가톨릭 의료기관이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으로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에 대한 구호와 의료사업을 앞장서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상 교수는 1958년부터 가톨릭대 의과대학에 재직하며 가톨릭중앙의료원 의무원장을 비롯한 많은 보직을 수행하면서 기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산업보건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한국 보건의료 사업에 큰 공헌을 하였고 현재 대한산업보건협회 명예회장으로 봉직하고 있다.



##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정기 세미나 및 이사회

한국가톨릭의료협회(회장 최영식 신부)는 10월 30일부터 3일간 강원도 양양 대명 쉼비치 리조트에서 ‘가톨릭 의료인의 사명과

# NEWS

‘대북의료지원’을 주제로, 가톨릭 의료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정기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특히 ‘새터민 의료현황’과 ‘대북의료지원 현황’에 대해 고경빈 하나원장과 김훈일(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대북지원소위원회 간사) 신부 강의를 듣고, 북녘 동포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실질적 의료지원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세미나에서는 또 가톨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지켜야 할 윤리 기준과 구체적 실천지침을 담은 「가톨릭 의학윤리 지침서」 개정에 따라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이동익 신부의 의학윤리 강의와 ‘가톨릭 의료인의 사명’ (차동엽 신부), ‘최신 병원정보 시스템’ (최병길 가톨릭대 교수)에 대한 강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의 이사회에서는 대북 의료지원 뿐 아니라 몽골에서 지속적이고 원활한 의료선교사업을 펼치기 위해 몽골 다르항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도록 의결하였다.



##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제23차 세계대회 참석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제23차 세계대회가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로마 바티칸에서 개최되어 한국가톨릭의료협회에서 6명의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어린이 환자를 위한 사목적 배려”(Pastoral Care in the Treatment of Sick Children)의 주제로 열린 올해 세계대회에는 - 세계 어린이 환자 진료에 대한 역사, 세계 어린이 인구통계와 사망률 통계, 어린이에게 치명적인 주요 질병, 어린이들의 질병과 세계화, 어린이 질환의 원인, 성서에 나온 어린이 환자 돌봄, 어린이 환자 돌봄을 위해 일생을 바친 성인들의 증거 등 어린이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과 기관, 어린이 환자들을 위한 영성적 도움(성사와 기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등의 주제로 강의를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대회 마지막 날 교황님(베네딕도16세)의 강복도 받을 수 있었다.



## 몽골아이 ‘우린’, ‘갈랑다옥’ 무료 치료 도움

선천성 쇄항증을 가진 몽골아이 ‘우린’ (2008년 5월 10일생)과 3세 때 개에게 물리는 사고로 안면 기형을 지니고 살아온 ‘갈랑다옥’(남, 17세)이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다.

부모가 한국에서의 불법체류로 강제 출국당한 뒤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우린’은 몽골에서 활동중인 살레시오회 이호열 신부가 본 협회에 도움을 청하여 2008년 10월 28일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소아외과 이명덕 교수)에 입원하였으며, 11월 5일 항문성형술을 받고 수술 결과는 매우 양호한 상태이다. 수술비와 앞으로의 재활치료비는 전액 강남성모병원의 자선기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갈랑다옥’은 현재 10학년(고1)이며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국가 지원 보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3세 때에 사고



# NEWS

를 당한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형편과 몽골의 뒤떨어진 의료수준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본 협회의 몽골 의료선교에서 초진진료를 받으면서 한국으로의 초청 대상자가 되었다. 그 후 다르항시 살레시오 회관의 이호열 신부가 진행하는 방과 후 교실을 통해 성당에 나가 예비자 교리를 받고 있으며, 11월 10일 여의도 성모병원 성형외과(변준희 교수)에서 입원하여 CT 촬영, 골밀도 검사 및 안과 검사 등 각종 검사를 하였고, 안와를 형성하는 뼈가 으스러진 상태이며 눈물샘도 막혀있어 11월 12일 안와재건수술을 받게 되었다. 현재 진료는 안과와 성형외과 등 협진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 치료가 끝나면 1년 후 다시 2차 안면 성형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갈랑다옥'의 치료비용은 전액 성모병원에서 자선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 일본, '베드로 키베 신부와 187위 순교자 시복식'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임원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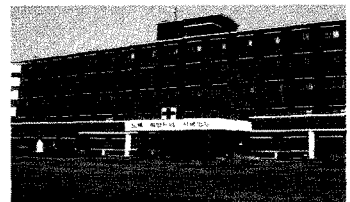
일본 가톨릭교회협의회와 로마 교황청 주최로 '베드로 키베 신부와 187위 순교자의 시복식'(이하 시복식)이 11월 24일 일본 나가사키시 빅스타디움에서 3만 명에 이르는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시복식에는 교황대리 전 교황청 시성성 장관 호세 사라이바 마르팅스 추기경을 비롯해 해외에서 참가하는 주교단, 사제단 및 일본주교단과 사제단 주례로 거행되었으며, 본 협회에서는 '시복식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는 7주'의 기도를 같이 드리고 최영식 회장 신부를 비롯한 5명의 사제와 10명의 임원이 참석하였고 3명의 의료진을 파견하여 시복식 행사 중 응급의료를 지원하였다.

## 한국가톨릭병원협회 한국가톨릭 병원협회 이사회, '(재)예수의 꽃동네 유지재단 노체리안드리자애병원'을 회원병원으로...

한국가톨릭병원협회(회장 최영식 신부)는 10월 30일 양양 대명 쏘비치 리조트에서 2008년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예수의 꽃동네 유지재단 '노체리안드리자애병원'을 새로운 회원병원 가입승인하였다.



버림받은 이들의 용서와 화해를 위한 마지막 안식처, 가평 꽃동네 노체리안드리자애병원(병원장 신상현 야고보)은 같은 재단인 인곡자애병원이 이미 가톨릭병원협회 회원병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2008년 봄호 Health & Mission(vol.10) '회원병원 소개 2'에 꽃동네병원으로 소개된 바 있다.

진로주식회사의 장진호 회장이 1995년에 경기도 가평에 45억을 들여서 준 종합병원인 노체리안드리자애병원을 건립, 기증하였으며 의료장비는 정부의 도움으로 구입하였고, 현 99 병상으로 의료 인력은 개원당시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정신과 교수를 파견하여 문을 열 수 있었고 그 뒤 일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과 공중 보건의를 배치 받아 산부인과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과목을 개설한 준 종합병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현재 '의지할 곳 없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어' 길가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4,000명의 환자들이 삶과 영생의 희망으로 생활하고 있다.